

포커스아웃 보이

#정체성
#성장
#시간
#소외
#시선
#고립
#관계
#불안
#존재
#자기인식
#성장통

독후활동지
학생용

문학과지성사

정은 장편소설

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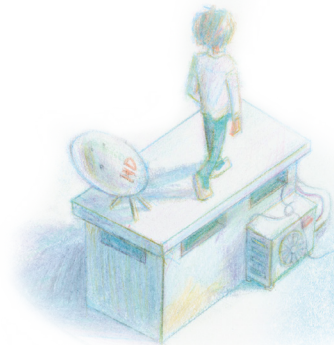
언제나 있어도 없는 것 같은, 배경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한마디로 있으나 마나 한 존재. 『포커스아웃 보이』의 주인공 '정진' 이야기다. 진이는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만 모자이크 처리를 한 사진처럼” 흐릿한 얼굴을 지녔다. 손으로 만져보면 눈도 크고 코도 오뎅하고 입술도 두꺼운 편이지만, 얼굴을 보려고 하면 이목구비의 선이 뭉개지고 흐릿하게 보인다. 엄마 아빠는 뱃살 때문에 무선장애가 일어났을 수도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하지만, 고2가 될 때까지 진이의 얼굴은 “여전히 로딩 중”이다.

사람들은 흐릿한 진이의 얼굴 위로 보고 싶은 얼굴을 떠올리거나 진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린다. 진이는 무리 속에 섞여 있으면 사람들의 인식에서 지워지고, 보고 싶은 얼굴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얼굴이 진이 얼굴에 덧씌워진다. 이런 상황을 왔다 갔다 하며 귀찮은 일도 겪지만, 수업 중 지목당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얼굴이 흐릿해 인상이 없는 진이의 인생은 누락의 연속이지만 세상에 대해 득도했기에 화도 나지 않고, 너무 나서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묻어가며 그런 애들 중 한 명이 되면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진이에게 특별한 사건이 벌어진다. 난생처음으로 누군가와 두 눈이 마주친 것. 유리 누나와의 만남이다. 유리는 싱크아웃 걸로, 진이와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세상과 싱크가 맞지 않는 영화 자막과도” 같은 삶을 살아왔다. 진이와 유리는 서로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위안을 주고받는다. 진이는 유리 누나를 통해 비로소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깨닫게 되고, 흐릿한 얼굴로 인한 희미한 존재감 속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나는 그냥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유리 누나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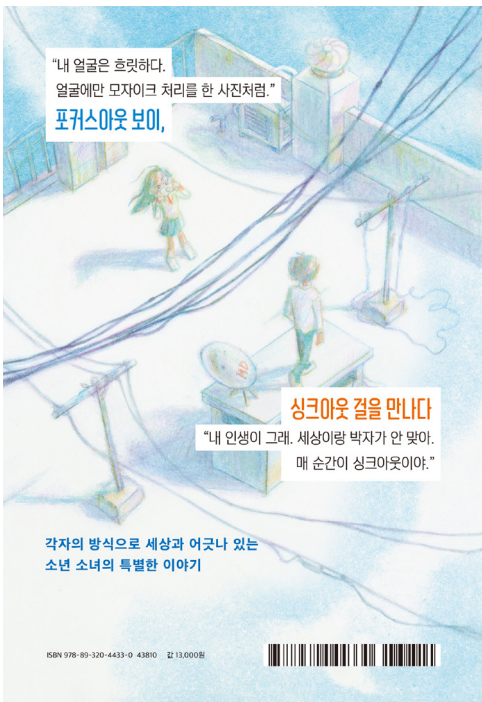
지은이 정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과에서 서사 창작 전공으로 예술전문사 학위를 받았다. 장편소설 『산책을 듣는 시간』으로 2018년 사계절문학상 대상을 받았고 에세이 『커피와 담배』 『기내식 먹는 기분』 등을 썼다.





1. 표지와 책 제목을 보고 내가 작가라면 어떤 이야기를 펼쳐나갈지 상상하여 적어보세요.



2. 뒤표지를 보고 난 후에 내가 포커스아웃 보이나 싱크아웃 걸이라면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유추하여 적어보세요.



인상 깊은 구절 필사	
줄거리 요약	
나의 감정 변화 기록	



책을 읽으면서
떠올린 질문

인물 관계도 그려보기

키워드 10개 뽑기



1. 나는 내 얼굴을 정말로 알고 있을까요? 눈을 감고 자기 얼굴을 떠올려보세요. 내 얼굴이 흐릿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상상해보세요.

2. 사람들이 흐릿한 정진의 얼굴을 보고 싶은 사람의 얼굴로 착각했던 것처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었던 경험이 있나요?

3. 나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얼굴을 정말로 알고 있을까요? 눈을 감고 떠올릴 수 있나요? 나는 가족과 친구들을 어떻게 알아보는 걸까요?



4. 만약 내가 유리처럼 세상과 속도가 다르다면 어떨 것 같아요? 하루를 상상해보세요.

5. 늦어서 계획대로 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면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된 경험이 있나요?

6. 유리가 나한테 자기 얘기를 털어놓으면 뭐라고 대답해줄 것 같아요?



7. 정진이 나한테 자기 얘기를 털어놓으면 뭐라고 대답해줄 것 같나요?

8. 정진이 영민이에게 자기 얘기를 털어놓은 것처럼 나의 비밀을 다른 친구에게 털어놓는다면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해줄 것 같나요?

9. 친구나 가족을 위해서 한 행동이었는데 사실은 내 욕심이었던 적이 있나요?



10. 유튜버 정진과 실제 정진이 다른 것처럼,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와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무엇이 진짜일까요? 그 격차가 크길 바라나요? 줄어들길 바라나요?

11. 유리와 정진, 영민이 중 한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면 누구에게 쓰고 싶나요? 왜 그 사람인가요?

12. 내가 한 말이 뒤늦게 도착한다면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포커스아웃 보이> 스토리 카드뉴스 제작하기



카드뉴스 예시 내 얼굴은 흐릿하다. 얼굴에만 모자이크 처리를 한 사진처럼.	손으로 얼굴을 만지면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내 얼굴을 보려고 하면 이목구비의 선이 뭉개지고 흐릿하게 보인다. 마치 내 얼굴 앞에만 반투명 마스크가 쓰인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만 모자이크 처리를 한 사진처럼" 흐릿한 얼굴을 지닌 포커스아웃 보이 '정진'
내가 태어난 순간에는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대. 의사는 내가 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생각했어. 다른 신생아처럼 입 모양으로는 울고 있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거든.	울듯이 얼굴로만 악을 쓰는 나를 엄마의 왼쪽 가슴에 올려놓고 심장박동 소리를 듣게 하니 악을 쓰는 표정에서 편안한 표정으로 바뀌었대. 그때 갑자기 울음소리가 들린 거야. 소리가 지각이라도 한 것처럼.	세상과 "싱크가 맞지 않아" 늘 지각을 하고 목소리가 늦게 전달되는 싱크아웃 걸 '유리'
"사는 게 고통스러웠어?" "늘..... 초대받지 않은 파티에 강제로 와 있는 기분이야. 세상에 초대받지 못한 손님 같은, 유명처럼, 거기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포커스아웃 보이 '정진' 싱크아웃 걸 '유리' 세상과 어긋나 있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만 맞다는 사실은 다행일까, 불행일까?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과 어긋나 있는 소년 소녀의 특별한 이야기 포커스아웃 보이 황백은 미래문학의 대가 송민환 작가 "포커스아웃 보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통해, 어떻게 "가시"를 만들어내는지

스토리 카드뉴스 제작 TIP

- ① 책의 사건을 생각해보면서 큰 줄거리를 정리해보세요. 스토리를 각자의 시점으로 정리해도 좋습니다.
- ② 책을 읽으면서 좋았거나 인상적이었던 문장을 뽑아보세요.
- ③ 이전 독서 활동을 생각하면서 전체적인 소감을 정리해보고 짧은 추천사를 적어보세요.
- ④ 책의 스토리와 발문, 소감, 추천사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카드뉴스 문안을 작성해보세요.



<포커스아웃 보이> 카드뉴스 문안 작성

1	2
3	4
5	6



문학과 지성사

주소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7길 18

전화 02-338-7224

팩스 02-338-7221

홈페이지 <http://moonji.com>

문지푸른책은 책을 통해 성장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푸른 대지가 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그동안 배움은 곧 경쟁이며, 지식은 힘을 얻는 수단일 뿐이라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책도 너무 먼 곳에서 그저 외우기만 강요했습니다.
문지푸른책은 스스로 깨닫고 익혀서 풍요로운 삶을 이루어가는,
참된 삶의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색하고 실천하여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길로 안내하고자 합니다